

일반인 종사자 한달 평균임금 269만원 vs 53만원 장애인 근로자 한달 평균임금

일반인 종사자만 배불린 남구 장애인 재활사업장

‘제석근로사업장’ 부실운영 보조금만 수억원 쏟아부어 남구청 ‘뺑주기 행정’ 비판

광주시 남구가 위탁·운영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제석 근로사업장’의 부실 운영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남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한 달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일반인 종사자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차지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초 자치단체와 해당 업체간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한 최저 임금의 80% 지급·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남구는 뒷집지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2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2010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건립한 제석 근로사업장을 위탁 운영중인 (사)한울가복지회에 매년 2억5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된 보조금 가운데 80%가 넘는 예산이 이 사업장 내 일반인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한울가복지회는 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억2119만원의 일반인 직원 인건비로

- 제석 근로사업장은**
- 2010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건립
- 2012년 한울가복지회사 위탁 운영
- 보조금 현황과 실태**
- 작년 2억6000만원 지원
- 일반인 직원 인건비로 2억2119만원 지출
- 6달간 장애인 임금체불
- 뒷집진 남구 행정**
- 최저임금 80% 지급 등 위탁업체 약속 안 지켜도 재선정·제재 조치 안해

썼다. 직원 1인당 월 평균 26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기간 고용된 장애인 1인당 평균 급여 53만원의 5배가 넘는다. 장애인 고용 시설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인데도 장애인 시설 활성화가 아닌 일반인 직원들 인건비에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5~8월에는 장애인 임금 3250만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에 종사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됐다. 사업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 때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구는 또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 수익이 꾸준하지 못해 향후 장애인 임금과 감치 원재료 구입에 따른 자재비용 등의 부담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과 달리, 직원들의 경우 인건비가 고박고박 나오는데, 주요 사업인 감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매달리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남구는 지난 2012년 4월, 이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된 뒤부터 애초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된 최저 임금의 80% 지급·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구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및 위·수탁 업체 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사업체 유치 방안 및 장애인 상품 판매 개척,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장의 개선 의지가 있고 업무를 맡을 위탁업체를 찾기는 시간이 걸린다. 국가보조금에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지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부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진귀국

수감...“지역민에 심려 끼쳐 죄송”

벌금과 세금을 미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자진귀국했다.

광주지검은 23일 “허 전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수감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번 수감으로 미납 벌금 254억원을 안납하게 된다. 또 국내 136억원도 개인재산 압류와 담보 등으로 모두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누문동 토지 등

부동산 13건이 압류 조치돼 이 중 8건이 공매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5건도 조만간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허 회장은 지난 2009년 대주건설이 자금난에 허덕이자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부도 직

전까지 3750억원의 어음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사재를 모두 결제 대금으로 쏟아부으면서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90년대 덕산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경제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허 회장은 이러한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마지막까지 어음을 결제한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관 앞둔 5·18 모지 유족센터 23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매점 부지에 신축된 유족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 면적 841㎡·예산 14억 원)의 유족센터엔 휴게시설·매점·교육관·회의실·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선다. 기존 5·18 관리사무소는 VIP실로 운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위험한 리프트카...광주서 30대 여성 추락 부상

호텔 무등파크 관광 리프트에서 리프트카를 타던 30대 여성이 추락했다.

본격적인 행락철,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한 안전 사고인데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던 전례 등을 고려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23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호텔 무등파크 관광리프트에

서 리프트카(2인승·왕복 1490m 구간)를 타던 김모(여·36)씨가 추락, 2.5m 아래 안전 그물망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산 정상인 팔각정에서 딸(5)과 함께 리프트카를 타고 15m 가량 호텔 무등파크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딸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려는 것을 보고 저지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리프트 운영주체인 (주)나경 인터내셔널측은 사고 직후 리프트 운영을 중단했고 이 시각 리프트에 타고 있던 20~30명의 관광객들은 공중에서 머물러 있다가 40여 분만에 운행이 재개되면서 구조됐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동구청은 이번 사고 원인을 탑승객 부주의로 파악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추락 등에 대비해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운영주체인 (주)나경 인터내셔널 측이 탑승객에게 이같은 안전 조치를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탑승객에게만 사고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광 리프트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운반식 1기가 미끄러지면서 추락,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2009년 2월과 2008년 8월에도 탑승자들이 3m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등 지난 2008년 이후 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 등 전남 6명 홍역 환자 발생

도, 방역대책반 긴급구성 정밀 역학조사·예방접종

전남도는 23일 “최근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도내에서 6명의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긴급

구성, 정밀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에 나서는 한편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또한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 역학조사반을 조기에 투입해 홍역이 최초로 발생한 목포 모 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의료진 감염 여부, 환자 격리 치료와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섰

다. 비상상황실도 가동태세에 들어가 홍역 유행 관리지침과 예방 조치 사항을 도내 22개 시군에 전달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환경과장은 “우리나라 홍역 예방 접종률은 99.5% 이상으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법 위반 광주시 대변인 광주지법, 오늘 구속적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Y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Y씨의 구속적부심이 24일 오후 2시30분 광주

지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타당한 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가리는 제도다.

Y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애완견 교배 취소한 여성순남 먹살잡은 업자 경찰서행



○애완견 교배를 취소하면서 제반 비용 문제로 시비, 교배를 의뢰한 여성 순남의 먹살을 잡은 30대 교배 업자가 경찰서행 ○23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강모(33)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관산구 임곡동 자신의 애완견 교배장에서 2주 전 애완견 교배를 의뢰했다가 돌연 계약을 철회

하며 처음 지급했던 교배 의뢰비마저 달라고 한 A(여·35)씨의 먹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

○A씨는 강제 주장과 달리, “서틀랜드 쉽독의 교배를 한 차례 의뢰할 때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실패해 놓고 2차 교배에 2주 이상 걸려 취소했는데 들어간 비용을 또 달라고 해 항의했다니 먹살을 잡았다”며 분통. /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14학년도 **강생모집**

다문화상담사, 에니어그램 1단계 기본과정, 우쿨렐레 초급, 오키리나 초급

문의처 062)605-1112, 1063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로 38

hello 모바일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무료

다양한 최신 피쳐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만 고객님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